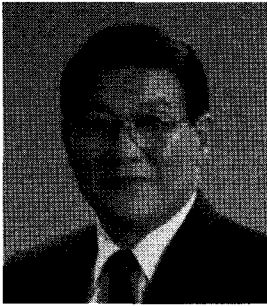


# “상호이해와 신뢰속-새로운 길 열어가자”

제12회 韓·日·臺 3국 농약공업협회 회의 盛了  
台北 來來大飯店서, 많은 成果거뒀



廉泰根 회장

제12회 韓日臺 3國농약공업협회 회의(姊妹會議)가 지난 10월 27일 臺灣의 台北市에 있는 來來大飯店 (Lai Lai Sheraton Hotel)에서 열렸다. 대만농약공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廉泰根 회장을 비롯한 18名, 日本은 小平祐 회장의 17名, 주최국인 대만은 40名의 대표가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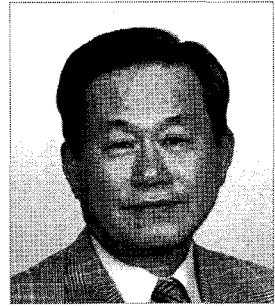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 廉泰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농약의 유익성과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되고, 농약이 식량을 해결해주고 농작물을 보호해주는 필요한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하는 것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世



小平祐 회장

態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하고 「변화하는 농업여건과 국제동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약업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정보교환과 다양한 논리를 전개, 농약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자세를 정립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小平祐 회장은 「韓日臺 3국의 농업은 국민의 생활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새로운 국제농업환경에 대응한 농업의 장래를 타결해나가는 공통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시아의 선진적 입장에 있는 3국이 인구증가와 식량증산 그리고 환경보전 측면에서 역할을



張耀科 회장

다해나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張耀科 회장은 「3국자매회의가 12회째를 맞으면서 그동안 상호 유대강화는 물론 각종 정보교환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세계의 무역자유화와 국제화의 흐름속에서 3국은 힘을 합쳐 농약공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 제13회 회의는 日本서 개최

예비회의 '95.4.7  
본회의 '95.10.26

내년 13회 회의는 日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예비회의는 4월7일에, 본회의는 10월26일에 갖기로 최종 결정하고 장소는 주최국에서 선정하여 추후 통보키

로 했다.

한편 회의가 끝난뒤 가진 만찬에는 3국대표단과 대만의 유관기관인사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분과위원회**

**韓國公병수거제도 집중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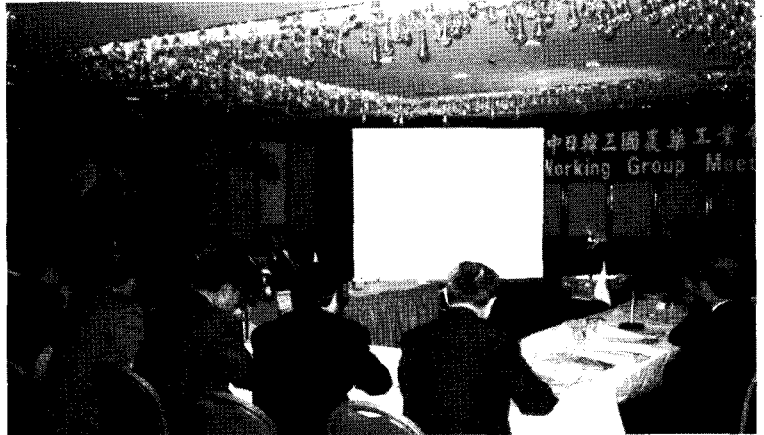
- 韓** - 농약안전사용 현황과 대책
- 日** - 아시아의 IPM에 관해
- 臺** - 농약안전사용 조사계획

올해로 3번째 개최한 분과위원회는 16명 (한국:6, 일본:4, 대만:6)이 참석하여 3시간동안 진지한 토의를 가졌다.

한국에서는 柳學善전무이사(성보화학)가 「한국의 농약안전사용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으며 日本은 小林昭生상무이사(住友化學)가 「아시아의 IPM」에 관해 발표를 하였고 주최국인 대만은 周金隆상무이사(Ihara 화학)가 「농약안전사용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농약공병회수처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에서의 농약공병회수에 대해 가장 잘하고 있다며 수집경로, 비용지불 절차등 세심한 부분에 까지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분과위원회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韓國側 발표 생략).



10월27일 오전 8:30부터 3시간동안 개최된 분과위원회3회째를 맞아 열띤토의를 하였다.

**SACI - 아시아의 IPM**

IPM의 개념은 1950년대까지는 「천적과 농약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체계」로 정립되어 왔으나 1965년 FAO의 IPM심포지움에서 「모든 적절한 기술을 상호 모순되지 않게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수준 이하로 해충개체군을 감소시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해충개체군 관리시스템」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IPM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해충 뿐 아니라 병해와 잡초를 포함한 유해생물(有害生物)의 종합방제로 확대되어 전체 농업생태계 관리의 일환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IPM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개별적 방제수단 ②피해허용수준 ③요방제 밀도라고 할 수 있다.

IPM은 천적지상주의도 농약지

상주의도 아닐뿐아니라 종래의 방제기술과 본질적으로 다른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포장에서 시행가능한 IPM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완성되어 있지도 않다. 1990년대 들어와서 세계의 농업은 전환기를 맞아 美國은 저투입 지속형농업, 歐州에서는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이행되고 있다. 日本에서도 「환경보전형 농업」이라고 불리는 농업형태를 하나의 정책으로서 내세우고 있다.

日本協會에서는 GIFAP의 「S UP(Safe Use Project)+IPM」 활동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현재 동남아시아 벼농사에서 실시되고 있는 IPM에 관한 실태조사를 체크하여 앞으로 IPM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PM은 반농약, 편파적 여론형성, 식량증산영향등 농약기업에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TAIA - 농약안전사용 조사**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약에 대한 잔류 및 안전에 관해서도 이론적인 개념만을 발표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도 이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없어 농약기업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과 병행하여 중요성을 널리 알려 농약산업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농약의 안전성을 이해시키고 공포심을 해소하기 위해 이 조사를 실시했다. 농약안전사용에 관한 조사에서 조사대상 농민중 94.2%가 농약살포가 병충해방제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농약지식을 얻는 중요한 방법으로는 「농약판매상-농약회사-친지(척)-농협」등이었다.

살포작업시 보호기구의 필요성

에 대한 응답에서는 「마스크→장화→장갑→비옷」순이었으며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보호장비의 사용률이 비교적 높았다.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더워서→불편해서→귀찮아서」가 주된 이유였고 여기서 눈여겨 볼점은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있는 사람은 44.4%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26.7%에 불과해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농약공병 회수 및 처리와 관련해서는 51.7%가 회수처리에 대해 알고있는 반면에 48.3%의 농민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35%)▲포장에 방치하는 경우(40.2%)▲회수장소에 운반하는 경우(9.4%)▲배수구에 버리는 경우(10.3%)▲기타(5.1%) 순이었다.

臺灣協會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약판매상에 대한 농

약사용교육강화 ▲농약회사의 교육내용검토및 강화 ▲보호장비 착용 홍보강화 ▲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강화 ▲공병회수처리에 대한 홍보·감독강화 등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 조사는 Cyanamid Taiwan회사의 협조아래 72명이 1년간 수행한 것.

**농약현황보고**

**日本 살충제 약간 감소 혼합제 크게 늘어**

-1993년 10월부터 1994년 9월까지의 출하수량은 40만3천톤으로 전년대비 96.7%였으며 출하금액은 3천738억엔으로 전년대비 101.8%였다. 살충제는 약간 감소한 반면 살균제와 제초제는 약간 증가하였으며 혼합제는 크게 늘어났다.

-제품의 결합에 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이 199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통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해 1993년 9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원제·제품회사, 유통업자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농약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협회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했다.

-중등학교 교원을 위한 농약독본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농약안전성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해 농약안전성 연구를 농약·의약·약학



리셉션파티장에서 廉泰根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위탁연구를 함으로써 이 결과를 농약의 바른 이해를 계발보급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병회수율 약 60%**  
**총 516종 농약 정부서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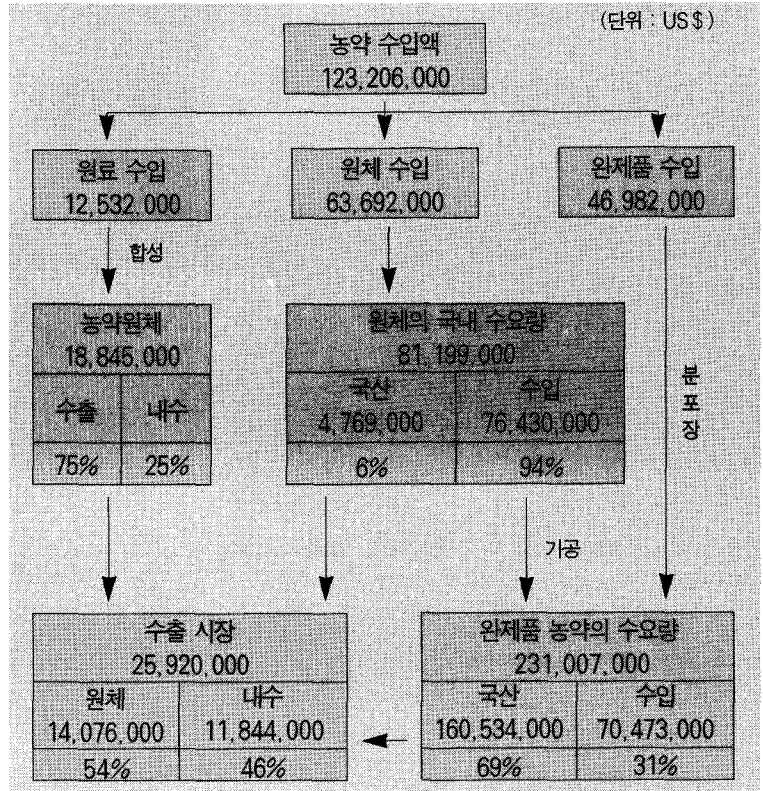
-1993년 대만의 농약총수입액은 1억2천3백만 US\$이며 이중에 농약원체(原體)는 6천4백만 US\$로 51.7%를 차지했고 완제품은 4천7백만 US\$로 38.1%를 차지했다. 합성농약 원체(原體)의 원료 및 유화제는 1천3백만 US\$로 10.2%를 차지하고 있다.

-1993년 완제품농약의 판매액은 ▲살충제 44.3% ▲제초제 33.1% ▲살균제 18.5% ▲기타 4.1%.

-최근 정부가 농업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쌀은 잡곡으로 전환추세이며 일부 농경지가 휴경 또는 녹비작물로 대체되면서 실경작면적이 줄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 최근 3년간 농약시장의 성장도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4년 4월8일 행정원환경보호처는 제4기 농약 폐용기 회수년도(1994. 4. 1~1995. 3. 31)의 회수목표를 65%로 공고했으며 농약회사는 농약폐용기 회수를 이행하되 2년연속 공고된 회수율에 미달할 때는 보증금에서 공제회수도 록 했다. 농약 폐용기 회수총량은 566.258M/T으로 회수율은 60.

1993년 대만의 농약 생산 판매 상황



12%였다.

-경제부 공업국의 위탁을 받아 농약공업육성을 위한 인재양성계획에의해 1993.7.1부터 1994.6.30까지 “농약제제개량과 연구개발” 훈련반 1기와 “농약품질관리” 훈련반 2기교육을 끝마쳤는데 참가자는 회사사 공장기술자 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약빈병줍기운동”을 202회 실시하여 농민과 만나는 농약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1993년 1월부터 지금까지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공고한 새농약은 38종으로 ▲살충제 8종 ▲살

균제 14종 ▲제초제 7종 ▲응애 약 3종 ▲살선충제 3종 ▲식물생장조정제 2종 ▲취약1종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고된 농약은 총 516종이며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약은 314종이다.

-일본농약협회에서 발행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농작물 수량조사 보고서” 2,000부를 번역 인쇄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농약정보**